

# 영광, 전남형 기본소득 시행…설 대목 ‘활기’

1인당 50만원 지급…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환급행사·공직자 장보기 등 운영…소비 선순환

영광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전남형 기본소득’을 통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이 민생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특히하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비교적 넉넉하지만, 설 명절 성수품 구매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소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눈에 띠게 늘었고, 평소보다 하나 더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더 많은 군민이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6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명절 이후까지 소비 효과가 이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한 일시적 소비 증기를 넘어, 지역 상권 전반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행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 일원에서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공직자들이 직접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구매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소비 진작을 위한 환급 행사도 마련된다.

12일부터 13일까지 두 전통시장에서 합산 5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광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시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두 시장 간 영수증 합산이나 교차 제출은 제외된다.

오프라인 시장에 더해 온라인 판로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광몰’을 통해 2월 20일까지 설



영광군이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설 및 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모습.

맞이 특별 할인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

역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

으로, 쿠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환급 행사, 공직자 장보기, 온라인 할인전 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

조를 만들기 위한 영광군의 민생 회복 전

략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장 골목부터 우리 지역경제까지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그치지 않고, 군민이 제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애용 홍보로 지역 경제 선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 곡성,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돋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

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군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384만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 생 및 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과정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

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과정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

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과정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

장흥군, 도로관리 역량 입증 국토부 도로정비평가 전국 3위

장흥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추계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단위에서 장흥군의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례 평가로, 도지사의 1차 서면평가, 국토교통부의 현장평가 등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는 포장 상태, 교량·배수시설 관리, 위험지구 정비, 도로표지판·도로 환경비 등 2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군은 도로 파손과 배수 불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집중호우와 겨울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도로설무원과 읍·면 직원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긴급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포장 보수, 배수 정비, 위험지구 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도로 안전을 지켜온 직원들과 체계적인 도로정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담당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 장성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본격화

### 조직위 발대…화합·성장 기회

장성군이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장은 장성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체육회장·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인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언론인, 체육회 임원 등 19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예정된 3종의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위해 역량을 모으다.

올해 장성에서는 △제21회 전남도어르

2026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5만 군민과 함께! 화합과 성장의 기회!

장성군이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신생활체육대축전(5월 14일~15일) △제38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9월 12일~14일) △전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5일~16일)가 열린다.

장성·이향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여수, 외국인정책팀 신설 ‘국제도시 첫걸음’

### 외국인 인식 개선·정착 지원…사회 통합 기대

여수시는 올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 6405명에서 지난해 7570명으로 2년 사이 약 18%가 증가했다. 전남도 내에서는 영암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는 영세 제조업체와 수산 가공업, 바다 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군에 내국인 구직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

도 공모 사업 신청 등을 종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나 수산 업종에 계절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gwangnam.co.kr

도 공모 사업 신청 등을 종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나 수산 업종에 계절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gwangnam.co.kr

## 고흥몰, 컨디션 관리상품 할인 판매

19일까지 알로에·도라지청 등 최대 50%

온라인 농수축산물을 쇼핑몰 고흥몰이 연휴 이후 떨어진 컨디션 회복과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 기획전을 운영한다.

고흥몰은 오는 19일까지 ‘연휴 끝 바로 필요, 그래서 고흥몰’ 기획전을 열고 알로에, 도라지청, 취나물 세이크 등 건강 먹거리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이후 피로 누적과 면역 저하, 식단 불균형을 고려해 ‘회복·정리·가벼운 식단’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특히 자극적인 명절 음식 이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간편 건강식과 전통 원료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주요 상품은 알로에 제품, 도라지청, 취나물 세이크 등 일상 회복형 먹거리다. 특히 취나물 세이크 등 간편 섭취형 상품을 확대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고흥몰은 2025년 누적 회원 수 5만 명, 누적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의 대표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농수축산물을 쇼핑몰 고흥몰이 연휴 이후 떨어진 컨디션 회복과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 기획전을 운영한다.

고흥몰 관계자는 “명절 이후 가장 필요 한 것은 과한 보양식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균형이다”며 “가볍게 시작 할 수 있는 건강 먹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만큼 많은 분이 부담 없이 회복 식단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몰은 2025년 누적 회원 수 5만 명, 누적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의 대표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 구축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고흥몰은 2026년 1인 가구 및 소용량 상품 확대와 정기배송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활 밀착형 상생 유통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77@gwangnam.co.kr

## 담양, 청년 문화복지비 25만원 지원

종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한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 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 구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환경오염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또 능공 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과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휴 13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계도와 자율 점검을 유도해 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구례·김귀진 기자